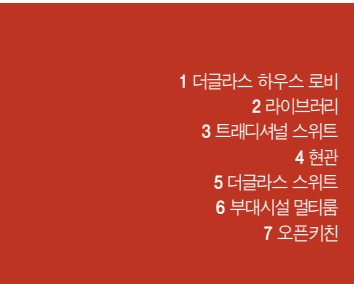


# 만 13세 미만 입장 못 하는 '어른 휴식 공간' 워커힐호텔 '더글라스 하우스' 리뉴얼 오픈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워커힐)의 '더글라스 하우스'가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4월 7일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새롭게 변신한 더글라스 하우스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을 지향하고 있다.

더글라스 하우스는 워커힐 개관 초창기에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호텔 건물로, 워커힐을 둘러싼 본래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산의 일부가 되도록 디자인됐다.

리뉴얼을 거친 더글라스 하우스는 아차산 기슭과 한강의 파노라마 전망을 통해 자연으로부터의 편안함을 그대로 전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더글라스 하우스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소재와 심신에 안정감을 주는 색깔인 그린과 브라운을 테마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성했다.

가구와 집기는 꼭 필요한 물건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갖췄다. 총 3개 룸 타입 가운데 '트래디셔널 스위트'는 자연의 안락함과 전통의 지혜로움을 반영한 온돌을 콘셉트로 한국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좌식 테이블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더글라스 스위트'는 해먹과 우든 발코니 등 한층 현대적인 요소들이 적용됐다.

'더글라스 달렉스'는 숲 속 오두막 같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프라이버시 존중 '미니멀 서비스' 도입

더글라스 하우스는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나의 코티지(cottage)'라는 콘셉트를 담은 라이브러리 공간을 제공한다. 문화 공간을 겸한 동네 책방으로 잘 알려진 '최인아책방'의 최인아 대표가 북 큐레이션과 공간 컨설팅을 담당했다. 여기에 도쿄 다이칸야마 츠타야 티사이트의 뮤직 컨시어지 오이카와 료코가 총괄한 플레이리스트가 더해졌다. 고객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사유와 재충전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편의 시설 운영 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미니멀한 서비스가 도입된다.

더글라스 라운지에서는 아침엔 빵과 커피, 차 등 가벼운 조식

- 1 더글라스 하우스 로비
- 2 라이브러리
- 3 트래디셔널 스위트
- 4 현관
- 5 더글라스 스위트
- 6 부대시설 멀티룸
- 7 오픈키친



을 즐길 수 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스낵과 와인, 맥주 등을 제공하는 '더글라스 아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조용히 혼술 한 잔이나 가벼운 식사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자신한다.

### 제철 식재료 구비된 '오픈 키친' 운영

더글라스 하우스는 인덕션과 다양한 조리 기구가 갖춰진 오픈 키친(개방형 부엌)을 운영해 투숙객이 자유롭게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아침에는 계란, 오후에는 계절에 따라 다른 식재료가 구비된다. 4월 한 달 동안은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워커힐 셰프가 프랑스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르크루제의 무쇠 주물 냄비를 사용해 워커힐의 대표 메뉴를 만들어 보는 쿠킹 클래스가 열렸다. 호텔 브랜드 담당자는 "르크루제가 지닌 자신만의 감각적 라

이프를 지향하는 3050세대 고객군과 더글라스 하우스의 고객군이 서로 일치한다"며 "양사 간 상호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창의적인 업무 구상을 위한 미팅룸과 미니 당구, 전자 다트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멀티룸 같은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산속에 자리 잡은 더글라스 하우스의 입지를 고려해 그랜드워커힐 서울 본관과 더글라스 하우스를 왕복하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된다.

더글라스 하우스는 '어른의 휴식'을 강조하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설계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 02-2022-0000)로 하면 된다. 더 많은 정보는 워커힐 홈페이지 (www.walkerhi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